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69 | 2024 SEPTEMBER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이사야 60장 1-3절 -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은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폭력을 중단하고

- 오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 박해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를 일으키다

- 안부를 물어주고
- 함께 있어주다

박해와 선교현장

-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9월호 | 통권 269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임훈희,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은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04 폭력을 중단하고

- 오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 박해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10 치유를 일으키다


- 안부를 물어주고
- 함께 있어주다

14 박해와 선교현장 -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20 Heart To Heart

-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픈도어 연구에 따르면, 출산아 추산했을 때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 대부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충격적인 이주 위기를 휘몰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충돌로 인해 쫓겨난 대략 3,450만명 중 최소 1,620만명이 기독교인 인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집과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같이 증가하는 위기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식량 불안, 트라우마, 빈곤, 그리고 절망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상처를 입었지만 회복력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와 동역자님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도 계속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도움을 구합니다.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켜주시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올해는 실향민들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더 진행되며 아프리카 교회가 믿음을 살아 내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폭력을 중단하고

오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바나바 목사는 4년 동안 이 실향민 캠프에서
아내와 자녀 다섯명과 함께 생존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박해로 인해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1,6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킬 때입니다.

영성하게 만들어진 임시 천막이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어 강한 열기를 거의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충분한 식량도, 수도물도 없고 화장실도 너무 없고 질병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끔찍한 상태의 이 실향민 캠프가 바나바 목사, 아내, 그리고 다섯 자녀에게는 '집'입니다. 그들 천막의 바닥 면적은 더블 매트리스 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이 생존을 위한 분투입니다.

그들은 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이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저희는 폭력으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나이지리아에는 수많은 이들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둠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잊혀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나바 목사가 말합니다.

실향민이 된 1,600만

바나바 목사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조상의 땅과 집에서 내쫓긴 1,620만 기독교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이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 카에다, 알샤바브, 보코 하람과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고 전례 없는 폭력으로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이 공격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살해 당하고 있으며 기독교 마을들과 학교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테러 단체들에 의해 토지 40%를 잃었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곳에서 무장세력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본적 없는 규모의 폭력적인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께서 그들과 함께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 일어나라 아프리카를 통해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박해 받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7년까지 400만 성도에게 영적,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회복력 있고 지략 있고 영향력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교회가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것을 보기를 목표합니다.

올해는 폭력적인 박해로 인해 집을 잃은 1,600만 기독교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나바 목사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농장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고 실향민 캠프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체테 공격

"무장세력들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일부는 총을 가지고, 일부는 마체테를 가지고, 또 일부는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저의 형제는 총격으로 죽임을 당했고, 형제의 아내도 총격과 마체테로 공격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도망했고 막대기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날의 무서운 폭력은 바나바 목사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대단히 파괴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밥을 먹

릴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 목사는 옆에 어린이와 함께 실향민 캠프에 먼지와 쓰레기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바나바 목사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양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불안과 불안정은 교회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으며 강제 이주 위기, 교육 위기, 그리고 의료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 목사를 비롯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세계 교회에게 촉구합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행동하여 주시기를 말이지요.

*“저희의 앞길과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바 목사와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박해 받는 형제 자매들과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되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 기도, 그리고 오늘의 이 같은 실천은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바나바 목사를 비롯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긴급 식량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기술 훈련과 트라우마 치유도 곧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박해 받는 교회가 굳건하고 회복력있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였고, 저는 그분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앞길과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면 저희가 나은 삶을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1,6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교회와 함께 서서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기도해주세요

- 바나바 목사와 그의 가정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기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기를, 그리고 삶이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폭력이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악을 저지르기 위해 전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 치유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박해 받는 지역사회에 정의와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를 전하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물해주세요

3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긴급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식량, 의복, 그리고 의료 돌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0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아이에게 한 달치 교육,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캠페인-Arise Africa



[자동이체 신청하기]

계좌입금:

아프리카 /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캠페인' 세 글자를 함께 넣어주세요)

박해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폭력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롬, 데보라, 그리고 조나단...

이름

제롬 JEROME



상황

테러범들이 아들을 살해하자 십대 자녀들과 함께 농장에서 도망함

제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는 오이차 실향민 캠프에 도착한 후로 십대 자녀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됨을 느꼈고 -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폭력적인 박해로 인해 실향민이 된 1,600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롬이 말하기를 “테러범들이 저의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오토바이와 집을 불태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면한 큰 어려움은 식량문제입니다.”

그가 덧붙이기를 “이곳에서 십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나쁜 습관을 모방합니다. 저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십대 여자 아이들 가운데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일어나고, 저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제롬에게 일용한 양식과 안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제롬의 십대 자녀들의 삶이 목적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제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름

데보라 DEBORAH

상황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미망인,
오이차 난민 캠프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데보라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수리공이었고,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온 데 피가 있었고, 남편은 망치로 공격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니다.”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슬람 저항 단체인 민주군사동맹 (ADF)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데보라는 도망했고 현재는 자녀들과 함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적 외상을 입고 비통해하고 있으며 지원 없이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전히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립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오늘 하나님께서 데보라를 위로해주시기를 - 그녀가 주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 데보라가 오픈도어 트라우마 치유 세션에 참여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데보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

조나단 JONATHAN

상황

**가족이 살해 당하고 나서 형제와 함께 오이차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다**

조나단은 소중한 가족 사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 행복한 때를 회상하면서 말이죠.



현재 조나단은 17살 형제 캄발레와 함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캄발레는 심한 정신적 외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민주군사동맹 (ADF)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 당하는 것을 보았습

니다. “제 형제가 그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당시 그는 숨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즘 삶은 분투입니다. 조나단은 하교 후에 일을 찾아다니며 자신과 캄발레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신앙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캄발레와 같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생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조나단의 물리적 필요들이 충족되기를, 그리고 그가 예수님게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기쁨, 소망, 사랑, 그리고 실현의 미래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를 일으키다

안부를 물어주고

폭력적인 박해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현재 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1,620만 실향민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이들과 이들의 믿음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치와 캠프의 상황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여러분 덕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총소리가 울렸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풀라니 무장세력이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베누에주에 있는 그의 마을을 공격하고자 한다는 경고를 듣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집문을 관통해 총을 쏘았고, 형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 그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이 것은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그 이후로 국내 실향민들을 (IDPs) 위한 캠프인 이치와에 있는 임시 천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무장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캠프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식량도 소망도 없는

캠프 대표가 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천막 한개당 7명까지 함께 잠을 자고, 3,000명 이상이 겨우 화장 15개를 함께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학교에 참석하지 않는데, 그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는 대학에 가겠다는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때때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브라함은 (왼쪽)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로부터 (오른쪽) 긴급 식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봄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치와 국내 실향민 캠프에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건네주신 아량으로 긴급 식량 및 실제적 지원이 아브라함과 다른 성도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방문할 계획임을 전해주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신 도움 덕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번에 공급해주신 식량은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가정들 초차 대략 두 달 동안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식량 보다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돌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웃음을 지으며 덧붙이기를 “이곳 캠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지만 여러분을 만난 순간 기쁘고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늘 저희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희는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고 계심을 압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성도들은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줄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인생을 보호해 주셨기에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저를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주세요

- 캠프 대표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격려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서 굶주림과 질병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박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분투가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WWL
06

치유를 일으키다

함께 있어주다

부르키나파소의 한 마을에서 폭력적인 박해가 소레 목사와 그의 가족을 내쫓았을 때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소레 목사에게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소레 목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는 여러분이 아량으로 건네주신
- 식량, 영농 지원, 그리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소레 목사의 마을이 처음 공격을 당했을 때, 극단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두번 째에 그들은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세번 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소레 목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러범들이 기독교인들을 발견할 때 마다 기독교인들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소레 목사와 아내 테레사는 아름다운 집과 부흥하는 교회를 떠나 두 자녀를 비롯해 고아가 되거나 위탁된 아이들 15명과 함께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부르키나파소의 지하디스트 단체에 의해 집에서 내쫓긴 200만명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는 주로 북부에서 테러 단체에 의해 토지의 40%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실항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저희의 인생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무리는 길에서 나홀을 보냈는데, 국내 실항민들을 (IDPs) 위한 캠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구획의 황량한 땅에서 은신처를 준비했습니다.

“팅빈 이 공간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슬펐습니다. 가장 가까운 깨끗한 양수기는 걸어서 2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임시 천막에 씻겨가면서 모기와 뱀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도움 덕분에 솔레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고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씨앗과 비료를 통해 작물을 재배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재배한 옥수수를 손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 달 동안 먹었습니다!”

그가 덧붙이기를 “오픈도어팀은 저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의 아픔과 짐을 나눠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레 목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와 함께 서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봄은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의 놀라운 사역을 더욱 대담하게 합니다...

소레 목사가 말하기를 “저희는 실항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저희의 인생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음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오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모든 전사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분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WWL
20

기도해주세요

“저는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강제 이주를 당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소명에 따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거주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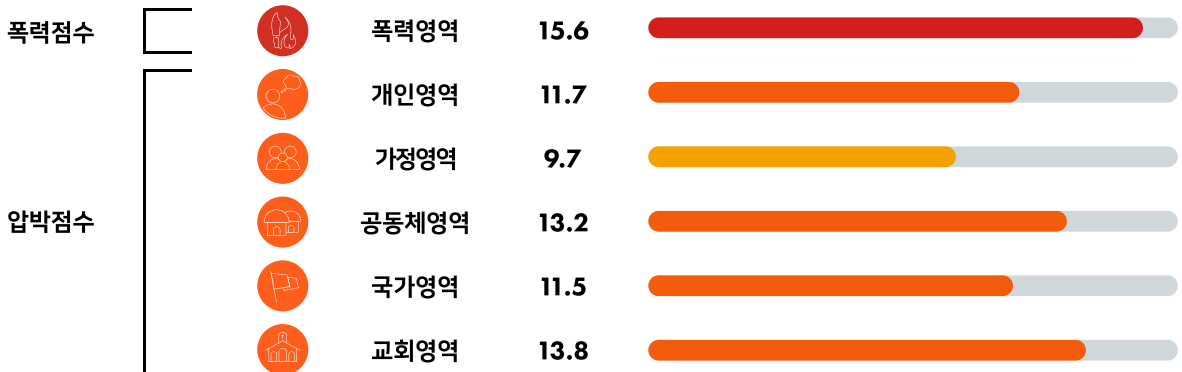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20 위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폭력과 압박의 정도



*6개 영역 박해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이슬람 무장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도시까지 그들의 영향력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단체" (JNIM) 가 그러하다. 기독교인들은 표적 살해되고 교회들은 파괴되었다. 니제르와 말리, 사헬의 넓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일어나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은 마을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표적이 되며 수백 개의 교회가 지하드로 인해 폐쇄되었다. 가족과 사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과 단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하고, 개종자들은 그런 협박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하드의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얻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의 범위는 더 좁아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박해 받는 기독교 집단은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이다.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국가 정보

지도자 :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

인구 : 22,721,000

기독교인 수 : 5,315,000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5,315,000	23.4
이슬람교도	12,761,000	56.2
민족종교주의자	4,511,000	19.9
불가지론자	128,000	0.6

출처²

부르키나파소는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 독재로 인해 혼란을 겪으며 27년간 통치한 불레즈 콤파오랭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또 다른 격동기를 맞았다.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최하 개발국 중 하나로, 인구 80%가 자급 농업에 종사한다.

지역적으로는 서구 강대국과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 가고, 이 일로 기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인권 감시 (Human Rights Watch), 국제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국제 위기그룹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 인권 상황은 2022년에 극적으로 악화되었고 2023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하드 활동의 확장과 조직적 범죄, 부패의 피해로 인해 이 끔찍한 상황의 복잡성에 또 다른 문제가 가중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가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잔인한 공격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군인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무장 단체에는 이슬람과 무슬림지지 그룹(JNIM),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WA), IS-대사하라지부(IGS),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AQIM), 알무라비툰, 안사르디네, 그리고 보코하람을 포함하나 이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하드 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국내 실향민이 급증하여 인구 10%인, 거의 200만 명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두 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통치 제제의 불안정은 더욱 가속되었다. 2022년 1월에 일어난 1차 쿠데타로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 대통령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에 일어난 두 번째 쿠데타를 주도한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통령이 정부를 자신의 군사 정권으로 대체하였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부르키나파소의 소수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신앙으로 인해 무장 단체에게 표적이 되어 생명을 잃고, 교회가 파괴되며, 광범위한 이주를 초래한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특히 납치와 강간, 강제 결혼 등에 노출되어 있고, 소년들은 무장 단체에 강제 징집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인권 위반일 뿐 아니라, 나라 안의 기독교 교회의 구조적 온전성을 약화하고 소외시킨다.

¹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Data source: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지역별 상황

북부와 동부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과 폭력을 겪는 주요 지역이며, 특히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서부 지역에 있는 민족 종교인들도 역시 기독교를 압박한다.

박해받는 성도

해외이주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이주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고립 상황이므로 WWL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가톨릭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대부분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므로, 이들은 과거에는 표적이 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기독교인 집단보다 폭력을 덜 겪는다.

기독교 개종자

이 범주에는 무슬림 기독교인이나, 아프리카 민속 종교의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이 속한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에서 가장 큰 박해를 겪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침례교, 복음주의 교단, 오순절 교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무장단체에 의해 가톨릭보다 더 많은 표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개종자들과 더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씨족의 탄압과 혼합된 이슬람의 탄압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북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슬람의 급진적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다. 안사르 울 이슬람은 2016년에 조직되어 폭력과 비폭력의 수단을 동원하여 나라의 북부 지역에 그들의 법을 강요하였다. 느스랏 알 이슬람 (이슬람과 무슬림을 지원하는 단체)은 프랑스와 프랑스 동맹국을 대상으로 싸우는데 더욱 중점을 둔다. 그들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불행이 프랑스와 서방의 도덕적 붕괴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한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무장 단체에 의해 공격 받아 왔으며 어떤 교회들은 그들의 표적공격이 두려워 보안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는 민간에 침투한 테러자들과 싸우기 위해 민간인을 잔인하게 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사헬 지역의 여러 나라에 조직화된 부패로 인해 지하드는 강제 징집과, 무기 구입, 처벌없는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국가 연구원이 지적한 바는: "정부의 통치 방식에 부패 수위가 너무 높으며, 강도와 납치와 같은 범죄가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는 그런 범죄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심지어 수도인 와가두구에서조차 그러하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특히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가 강하고 중앙 정부의 힘은 약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무장 단체에 의한 납치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성들은 강제로 결혼을 당하거나,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는 극심한 압박 아래 놓이게 된다. 성폭력은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을 위해 행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딸들은 강간의 표적이 된다. 이슬람이나 가톨릭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강제 결혼, 교육 거부, 가족에서 추방, 죽음의 위협, 가택 구금 등,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한다.

여성들이 받는 일반적인 박해:

- 납치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상속 또는 소유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정으로부터 강제 내쫓김 - 추방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나라에서 강제로 무장 단체에 가입하게 하며, 기독교인 남성들과 소년들은 강제 징집과 신체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 기독교인 남성의 납치와 살해는 가족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기독교 공동체 내에 두려움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으킨다. 많은 남자와 소년들은 시골이나 다른 나라의 안전 지역으로 피신한다. 남성이 대부분인 교회 지도자들은 납치와 처형으로 무장 단체에 표적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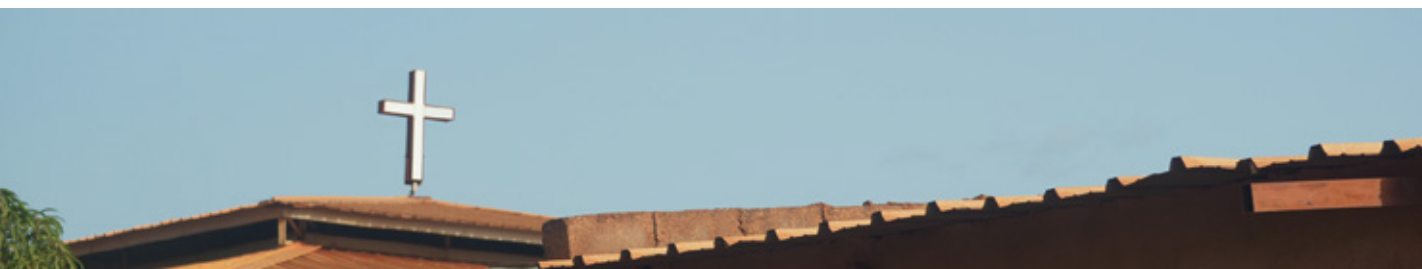
남성이 받는 일반적인 박해:

- 납치: 동네 / 국가에서 강제 추방
- 군대 / 민병 징집/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죽음 / 신체적 / 심리적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4	20	75
2023	23	71
2022	32	68
2021	32	67
2020	28	66

부르키나파소의 점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WWL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부르키나파소는 4점이 더 올라 75점을 육박하여 이제 20위가 되었다. 이런 심각한 박해 증가는 지하드 운동의 악화와 사회 경제 위기에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며, 특히 국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증가 추세는 주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박해의 급증 때문이다. 지하드 단체의 활동이 더 강경해짐에 따라 수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교육기관은 강제로 폐쇄되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 압력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러한 계획적인 표적과 살상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들이 기독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 지하드 세력은 여러 지역에서 정부 기능을 대체하고 국가의 필수적인 사무의 일을 관장하며 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안보 위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2년 1월과 10월의 군사 쿠데타는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에 더하여 니제르와 말리 같은 이웃 나라의 불안정함도 부르키나파소의 불안에 큰 원인이 되었다. 한때 두드러지게 관용적이었던 사회는 비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적대함이 높아지면서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종교적으로 얕은 종족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기독교의 단체들과 개종자에 대해 압력이 증폭되었다. 만일 현재의 궤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르키나파소는 더 위험하고 극도로 취약한 국가로 진화되어 위험한 불안정의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 2022년 10월 12일: 이슬람 무장 세력은 동부 Bogande 근처 Samou에서 세 교회에게 폐쇄 명령을 내렸다. 무장 세력은 또한 시민들에게 짧은 바지를 입고, 수염을 기르며 그들의 돼지를 팔도록 명령했다. (출처: US State Department IRFR 2022, Burkina Faso)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국내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납치 당한 기독교인
2024	7,000	31	100*	10*
2023	6,000	10*	10*	1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생활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게 되면 적대적인 반응을 직면한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어떤 시골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자료들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무장 단체가 와서 증거를 위해 그들의 집에 와서 살살이 뒤지기 때문이다. 개종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어떤 지역은 무슬림들로 인해 개종자는 추방 대상으로 취급 받는다.

가족 생활

지도자나 설립자가 주로 무슬림인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보보 디올라소 (Bobo Dioulasso)와 같은 도시와 수도인 와가두구 (Ouagadougou)에서 무장 세력이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교사들을 살해한 것이 보고되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상속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지하드에 의해 공격 받기 쉬운 지역에서 축제나 결혼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사회 생활

기독교인들은 특히 말리와 국경을 공유하는 북부 지역에서 표적이 많이 받는다. 솜 지방 (Soum Province)은 이슬람 무장 활동의 진원지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납치를 당하고 보안군이 공격받았다. 안사르 알-이슬람 운동은 학교 교사들에게 공격을 개시

하고 위협하여 학교 수업 언어인 프랑스어 대신에 아랍어로 바꾸게 하였다.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불을 질렀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을 떠났다. 강제 결혼은 또한 여성 개종자들을 이슬람으로 강제 복귀시키는 무기로도 사용된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인 지역에서는 공공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종종 거부당한다.

국가 생활

교회는 토지 구입 등으로 행정 당국의 허락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슬람교가 강하게 대표되고 급진적인 이데올로기가 기반을 두고 있는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강력하게 주둔하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그들의 적으로 간주된다.

교회 생활

국가는 공식적으로 이슬람 주의가 아닌 세속 주의이며, 기독교인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공격의 두려움 가운데 살며,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와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면밀히 감시 당하고 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의 청소년 사역은 극도로 침해 당한다. 성경과 기독교 자료 판매나 배부는 국가에 의해 금지되는 않지만 이런 활동은 전통 아프리카 종교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수행할 수 없다.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부르키나파소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에 대한 협약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CAT)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부르키나파소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 (ICCPR 제 6조)
-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상속 상실의 위험을 당한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인들과 이들의 활동들이 무장 단체들에게 감시 당한다 (ICCPR 제 17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의 위험에 처한다. (ICCPR 제 23조, CEDAW 제 16조)
-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이 때로 처벌 받지 않는다 (ICCPR 제 2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부르키나파소 안에서 이슬람의 급진화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의 주변 지역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고, 모스크와 마드라사는 점점 더 이슬람 수니파의 급진적인 형태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피 무슬림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소수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학교 교사들이 꾸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르키나파소의 다른 자경단 무장 단체들 사이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

오픈도어 부르키나파소 사역

오픈도어는 부르키나파소에 지하드의 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2019년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의 비전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고 가장 영향을 받는 이들을 돌보며 (박해 의식), 구호 활동, 외상적 트라우마 지원을 통해 교회들이 박해에 대해 점점 더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Heart To Heart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에 초대합니다.

2024년 10월 8일(화)-10일(목)

머스카슬론은 어떤 대회인가요?

대회를 홍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올해 세번째로 열리기에, 머스카슬론이란 이름이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머스카슬론은 원래 크리스찬 남성운동을 주도해온 4M이 전세계 인권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아프리카, 중동, 북한 등지에서 기획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머스카슬론은 북한에서 고통 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 몸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철원, 연천 등에서 진행된다. 매년 네델란드에서 오는 참가자들은 1만 유로(한화 1천5백만원 상당)를 모금해 참석한다. 이 모금액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던 필자는 첫번째 준비 미팅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

“네델란드인에게도 1만 유로는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가자들은 매년 기도하며 이 행사에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교회, 직장, 학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이벤트를 통해 모금을 시작하고 기도요청을 하지만 결코 쉬운 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3분의 기적

머스카슬론에 간절히 참석하고 싶었던 한 형제는 기도하며 열심히 모금했지만 1,000유로도 모금하지 못하고 절망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머스카슬론 참석에 진심이었던 형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축구클럽 구단주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구단주는 이 형제의 간절함에 감동이 되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향한 형제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세요.”

3분의 시간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형제의 호소를 들은 관중들은 즉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제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유로가 차고 넘쳤습니다. 머스카슬론은 단순한 극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신앙의 여정(딤후4:7)입니다.

머스카슬론의 영성

이러한 영성을 가진 40명의 네델란드인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남북의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각자 체험한 신앙이 서로 다르지만 북한 지하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의 자리에 한국청년들을 초대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엡4:3)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1회 참가자 마리영 론덴버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DMZ 가까이에서 달렸는데, 달리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행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 함께 달립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와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하여...

2024 머스카슬론 한국대회

CAMP PRAY RUN!

너는 일찍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시록 3:2

24. 10. 8(화) - 10(목)

장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참가비 모금 참가자 100만원 일반 참가자 30만원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small>*해외참가자 40명과 함께 합니다.</small>	모집기간 1차 8월 2일(금) 2차 8월 30일(금)
일정 연천 땀방기 기도회 캠핑(고대산 캠핑 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대회등록 산악 하이킹 (20km, 40km, 60km) 산악 마라톤 (10km, 20km, 42km) 산악 자전거 (100km)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아래 QR코드 참고)	

문의 02-595-3171 이메일 edsk@opendoors.or.kr 협회 DMZ 선교연합
주관 한국오픈도어 주최 4M & 오픈도어NL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